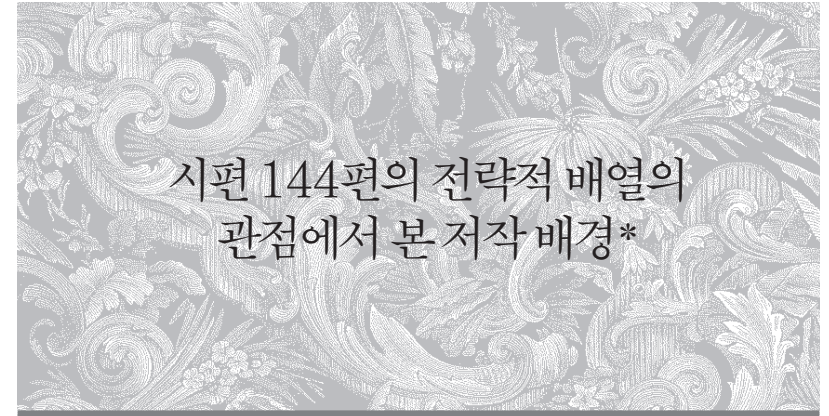


## Keywords

economic polarization  
the socially disadvantaged  
postexilic society  
social reform

- 투고일: 2015년 07월 01일
- 심사일: 2015년 07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08월 06일



김진규(백석대)

## 1. 들어가는 말

시편 144편은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두 가지의 다른 유형의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둘째는 시편 8편, 33편, 특히 18편과 같은 이전의 시편을 상당수 재사용하고 있는 점이다.<sup>1)</sup> 시편 144편은

\* 본 연구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분을 더욱 발전시킨 연구임을 밝힌다. Jinkyu Kim, "Psalm 110 in its Literary and Generic Contexts: An Eschatological Interpretation" (Ph.D. dis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2003).

1) 시편 144편에 시편 18편을 직간접으로 인용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144:1 // 18:3[2], 35[34]; 144:2 // 18:3[2], 48[47]; 144:5 // 18:10[9]; 144:6 // 18:15[14]; 144:7 // 18:17[16], 45[44], 46[45]. 시 144:9, 15b를 시 33:2b, 3a, 12a에서 인용하고 있고, 시 144:30이 Ps 8:4를 인용하고 있다. James L. Mays, *Psalms* (IBC; Louisville: John Knox, 1994), 436. 호스펠트(F. L. Hossfeld)와 쟁어(E. Zenger)는 시편 144편이 이전의 자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의 기원은 "늦은 포로후기"라고 간주하고 있다. 게다가 높은 빈도의 아람어 어휘의 사용과 왕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를 주저한 점 등이 이의 늦은 포로후기의 기원을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F. L. Hossfeld and E. Zenger, *Psalms 3*, (trans. L. M. Maloney), (Hermeneia;

내용상 혼합된 성격 때문에 주로 혼합된 양식으로 분류된다.<sup>2)</sup> 1-11절은 “일인칭 단수 문체”로 된 왕의 불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방인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주된 주제로 다루고 있다.<sup>3)</sup> 그러나 “일인칭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는 12-15절은 야훼를 섬기는 백성의 복과 안녕을 주로 다룬다.<sup>4)</sup> 시편 144편의 이렇게 혼합된 구성은 양식비평가들을 당황케 했다.<sup>5)</sup> 아래서 살펴겠지만 전통적인 양식비평적 접근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최근 시편 연구에 주목을 받고 있는 구성적 접근은 본 시편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시편 144편이 제5권의 거의 마지막에 배치된 제왕시라는 점은 제왕시의 전략적 배열의 관점에서 이 시편의 저작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연구에서 현재까지의 주된 접근 방법들을 살펴본 후에 구성적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시편 144편의 저작 배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 2. 시편 144편 해석에 대한 현재 이슈들

양식비평 방법론을 시편 해석에 도입한 궁켈은 시편 144편이 사용하는 두 가지의 다른 유형의 양식이 매우 달라 보였기 때문에 그의 주석에서 이를 두 개의 별도의 본문으로 다루었다.<sup>6)</sup> 궁켈은 첫 부분을 “왕의

불평의 노래”(“ein Königsklagelied”)로 간주했고, 두 번째 부분을 “이스라엘을 칭송하는 묘사”(“eine preisende Schilderung Israels”)로 여겼다.<sup>7)</sup> 궁켈(H. Gunkel)은 첫 번째 부분의 배경은 간구의 긴급성의 관점에서 군사 작전의 전조로 보았다.<sup>8)</sup> 그러나 바이저(A. Weiser)는 “왕의 연회를 위한 제의적 예배의식”을 시편 144편 전체를 위한 배경으로 제안했다.<sup>9)</sup> 그렇지만 그는 시편 144편의 후기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 시편이 메시아적 시편으로 재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sup>10)</sup> 알렌(L. Allen)도 두 번째 부분이 후기의 언어임을 알고 첫 부분의 제왕적 저작이 포로후기에 “메시아적 의미가 아니라” “당시 공동체에 적용되어” 재사용된 것이라고 제안했다.<sup>11)</sup> 바이저와 알렌이 언급한 것처럼 시편 144편의 언어적 데이터는 이 시편의 포로후기적 기원과 배경을 강하게 암시한다. 문제는 포로후기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제왕시가 지상의 왕을 가리켜 사용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 시편에 나오는 왕적 인물에 대한 보편화된 해석은 이 시편이 두 개의 혼합한 양식을 사용한 점을 설명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해는 왜 시편 기자가 두 개의 다른 유형의 내용을 함께 묶어 두었는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한다. 양식비평적 방법론은 이 시편의 기원과 배경을 파악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sup>12)</sup>

필자의 의견에는 시편 144편의 기원을 편집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 시편이 이전의 시편들을 상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1), 583-584.

- 2) Mitchell Dahood, S.J., *Psalms III: 101-150* (AB;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1970), 328; L. C. Allen, *Psalms 101-150* (WBC 21; Waco, Tex.: Word Books, 1983), 289; William R. Taylor, *The Book of Psalms* (IB 4; Nashville: Abingdon, 1989), 734-735; J. J. Stewart Perowne, *Commentary on the Psalms* (Grand Rapids: Kregel, 1989), 463-464.
- 3) 메이스, 윗글(1994), 435.
- 4) 윗글.
- 5) H. Gunkel, *Die Psalmen* (5th e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604-609; 알렌, 윗글, 289; J. C. McCann, Jr., *The Book of Psalms: Introduction, Commentary, and Reflections* (NIB 4; Nashville: Abingdon, 1996), 1254.
- 6) 궁켈, 윗글, 604-609.

- 7) 윗글, 604.
- 8) 윗글, 605.
- 9) Arthur Weiser, *The Psalms*. (trans. Herbert Hartwell),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62), 823-824.
- 10) 윗글, 824.
- 11) 알렌, 윗글, 290.
- 12) 여기서 양식비평의 한계를 관측할 수 있다. 문학 장르가 본문을 통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당수 재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3)</sup> 시편 기자가 그의 자료를 재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그의 편집상의 관심을 분별할 수 있다. 시편 144편은 이의 후기 언어적 특성과 제5권의 거의 마지막에 배치된 점을 고려하면 포로후기에 저작이 된 것 같다.<sup>14)</sup> “다윗의 시”라는 표제는 시편 18편(다윗의 시)을 많이 재사용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 같다.

다행히 최근의 시편 연구에 대한 구성적 접근(compositional approach)은 개별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의 편집 배경의 이해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sup>15)</sup> 구성적 접근은 시편의 편집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로서 1980년대 윌슨(G. H. Wilson)의 「히브리 시편의 편집」(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이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sup>16)</sup> 특히 윌슨이 시편 제1-3권에 제왕시들이 전략적 위치에 배치된 점을 관찰한 것은 그의 특별한 기여이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나 고라의 시편들과 아삽의 시편들 등은 함께 그룹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어떻게 제왕시들은 제1권의 시작 부분인 2편과 제2권의 마지막인 72편과 제3권의 마지막인 89편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었는가를 윌슨은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시편 전체에서 다윗 왕과 다윗 언약의 중심적 역할을 밝혔다. 또 이렇게 전략적으로 배치된 제왕시는 송영으로 끝난다는 점도

13) 12-15절의 언어적 증거에 비추어 알렌은 이 시편의 저작 시기를 포로후기로 보았다(윗글, 290). 그는 1-11 절은 포로기 이전으로부터 온 왕적인 모티프를 재사용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는 이 시편을 메시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당시의 공동체에 적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해석은 포로후기의 종말론적, 메시아적 사상의 발전과 어울리지 않는다. 필자의 생각에는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10절)은 시편 144편과 스가라 14장 사이의 주제상의 유사성의 관점에서 볼 때,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다.

14) 예를 들면, 13절에 𐤁(진/종류)이라는 말과 15절에 𐤁(세/관계사)라는 말은 이의 포로후기적 기원을 암시한다. 알렌, 윗글, 290.

15) 혹은 이를 “시편의 문맥적 해석”(contextual interpretation of the Psalms)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James L. Mays, “The Question of Context in Psalm Interpretation,” J. C. McCann, Jr.(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14-20; 김희석, “시 144편에 나타난 다윗 왕권과 그 신학적 함의,” 『구약논단』 16권 4호 (2010), 72.

16) G. H. Wilson,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SBLDS 76; Chico, Calif.: Scholars Press, 1985).

그는 밝혔다.<sup>1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4-5권에 나타난 제왕시들의 전략적 배열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편 전체에 대한 ‘편집 의도’를 잘못 파악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의 결정적인 실수는 시편 89편이 다윗 언약의 실패를 말한다고 결론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시편 전체의 편집 의도를 시편 제4권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점이다.<sup>18)</sup> 그리하여 그는 시편 제4권이 실패한 다윗 언약에 대한 답이라고 보았다. 그 답이란 “야훼를 신뢰하는 것”이 시편 전체의 편집 의도라고 보았다.<sup>19)</sup> 윌슨은 제5권에서 다윗이 야훼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야훼의 왕권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sup>20)</sup>

그 결과 윌슨의 연구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첫째, 윌슨은 제4-5권에 나오는 다윗 언약과 왕권이란 주제의 상당한 발전을 관찰하는데 실패했다. 시편 110, 132, 144편에는 분명히 다윗 언약과 왕권이란 주제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21)</sup> 시편 89편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던 다윗 언약에 대한 희망이 시편 132편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10-12, 17-18절). 둘째, 그는 시편 편집자가

17) G. H. Wilson, “The Use of Royal Psalms at the ‘Seams’ of the Hebrew Psalter,” *JSOT* 35 (1986), 85-94. 제1-3권에 나오는 제왕시의 전략적 배치에 대한 윌슨의 견해는 대부분 서구의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J. C. McCann, Jr., “Books I-III and the Editorial Purpose of the Hebrew Psalter,” J. C. McCann, Jr.(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93-107; P. D. Miller, Jr., “The Beginning of the Psalter,” J. C. McCann, Jr.(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83-92; E. Zenger, “Der Psalter als Wegweiser und Wegbegleiter: Ps 1-2 als Proömium des Psalmenbuchs,” A. Angenendt and H. Vorgrimler(ed.), *Sie wandern von Kraft zu Kraft: Aufbrüche, Wege, Begegnungen Festgabe für Bischof Reinhard Lettman* (Kevelaer: Butzon & Bercker, 1993), 29-47; K. Koenen, *Jahwe wird kommen, zu herrschenber die Erde: Ps 90-110 als Komposition* (BBB 101; Weinheim: Beltz Athen um Verlag, 1995), 110-111; D. C. Mitchell, *The Message of the Psalter: An Eschatological Programme in the Book of Psalms* (JSOTSup 25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243-271.

18) 이에 대한 반론은 필자의 논문을 참조하라. 김진규,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편 89편: 다윗 언약은 실패한 언약인가?” 『구약논단』 제15권 2호 (2009), 83-110.

19) 윌슨, 윗글(1985), 212-215. 특히 215쪽을 보라.

20) 윗글(1985), 220-228.

21) 김진규, 윗글(2003), 94-137.

시편을 수집할 당시에 가졌던 강한 신학적 시대정신(Zeitgeist)을 분석하는데 실패했다.<sup>22)</sup> 밀첼(D. Mitchell)은 쿵란 문헌, 칠십인역, 타굼, 페쉬타, 신약 등 모두는 종말론적인 방향으로 편집하고, 번역하고, 읽고 있음을 관측했다.<sup>23)</sup> 밀첼은 아삽의 시편들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에 초점을 맞추어 시편의 편집상의 의도를 밝혔는데, 그는 ‘종말론’이 시편의 주된 관심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sup>24)</sup> 무엇보다 그는 제왕시들의 종말론적 해석을 위한 탄탄한 기초를 놓았다. 윌슨이 말한 제왕시들의 전략적 배치의 이론에 대해 한편으로 동의하면서도 제5권에 나타난 제왕시들에 대해서는 윌슨과 의견을 달리하여 ‘종말론적 다윗 왕권’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간파하였다.<sup>25)</sup> 밀첼은 직설적으로 “시편에 제왕시들이 포함된 자체가 편집자는 이들이 미래의 ‘메시아’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함을 암시한다”라고 주장한다.<sup>26)</sup> 필자는 박사학위논문에서 시편 제4-5권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110, 132, 144편이 대표적인 종말론적 텍스트인 스가랴 9-14장과 매우 유사함을 밝혔다.<sup>27)</sup> 특히 시편 110편은 스가랴 9-14장뿐만 아니라 다른 종말론적인 텍스트인 요엘 3-4장(MT), 에스겔 34-48장과 저작(편집) 시기, 장르, 어휘소와 구절들, 주제와 모티프, 문체, 내용과 신학에 있어서 매우 유사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시편 110편을 양식비평의 ‘제왕시’라는 범주를 넘어서 구성적 해석의 관점에서 ‘종말론적 시편’으로 재분류해야 함을 주장하게 되었다.

22) 밀첼, *윗글*, 82-89, 303.

23) 윌슨, 15-65. 밀첼은 만약 제4-5권에 다윗 언약과 왕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왜 제4-5권의 표제에 ‘다윗’이 16회나 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시편 전체의 메시지가 야훼를 신뢰하는 것이라면 윌슨의 주장처럼 시편 89편이 야훼께서 다윗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주장으로 제3권을 종결짓고 있는가 등의 의문을 제기한다. 유윤중,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제15권 2호 (2009), 43쪽에서 재인용.

24) 밀첼, *윗글*, 90-165, 199-242.

25) 윌슨, 79.

26) 윌슨, 86.

27)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본 연구의 제한된 지면을 넘어가기 때문에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참조하길 바란다. 김진규, *윗글*(2003), 121-135. 스가랴 9-14장의 종말론적 특성에 대해서는 볼드윈의 주석을 참조하라. J. G. Baldwin, *Haggai, Zechariah, Malachi: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TOTC; Downers Grove: IVP, 1972), 157-208.

었다.<sup>28)</sup> 셋째, 윌슨의 논증에는 심각한 결함이 내재되어 있다. 그는 전략적으로 배치된 제왕시들의 주제와 제4권의 ‘야훼 말락’ 시편들을 비교하고 있는 점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서 그는 제1-3권에 나오는 전략적으로 배치된 시편들과 제4-5권에 나오는 전략적으로 배치된 시편을 비교해야 일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의 접근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시편 제4-5권에 나오는 제왕시들의 전략적 배열을 파악하는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기인한 것이다. 만약 그가 시편 제4-5권에 나오는 제왕시들의 전략적 배열을 올바르게 파악했다면, 제4-5권에도 다윗 언약과 왕권이란 주제가 일관성 있게 발전함을 깨달았을 것이다.<sup>29)</sup>

필자가 박사학위논문에서 다룬 것이 바로 윌슨이 간과한 이 점을 파악하고 제4-5권내에서 제왕시들의 전략적 배치를 밝히고 이의 관점에서 다윗 언약과 왕권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 연구가 시편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밝힌 것이다.<sup>30)</sup> 윌슨이 이미 인정했듯이 제1-3권과 제4-5권의 편집상의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편집자가 어떻게 제4-5권에서도 제1-3권에서처럼 제왕시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였는가를 밝힌 것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제1-3권에서 제왕시들이 처음이나 끝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것처럼 제4-5권 전체 속에서 하위그룹들을 파악하고 하위그룹들 내에서 제왕시들이 제

28)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도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참조하라. 김진규, *윗글*(2003), 176-275. 필자는 이 부분만 별도로 연구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다. Jinkyu Kim, “From a Royal Psalm to an Eschatological Psalm: The Changing Genre of Ps 110 in the Context of the Psalter,” *Korea Reformed Journal* 19 (2011), 9-43. 밀첼도 자신의 연구에서 시편의 주된 종말론적인 모티프인 ‘회집(會集)(ingathering)’이라는 주제가 스가랴 9-14장과 구조상 유사함을 발견하였다. 밀첼, *윗글*, 90-165, 199-242.

29) 김진규, *윗글*(2003), 43-44. 필자가 다윗 언약(삼하 7:11b-16)이란 주제가 전략적으로 배치된 제왕시들(시 2, 72, 89, 101, 110, 132, 144) 속에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사실을 논증한 것은 94-138쪽을 참조하라.

30) 윌슨(2003), 74-93.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중에 이 부분을 별도로 출판한 다음 논문도 참조하라. Jinkyu Kim, “The Strategic Arrangement of Royal Psalms in Books IV-V,”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70 (2008), 143-157.

1-3권에서처럼 거의 마지막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사실을 밝힌 것이다. 제4-5권의 하위단위를 순서대로 말하면, 90-110편, 111-118편, 119편, 120-134편, 135-145편, 146-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5권에 나오는 제왕시인 110, 132, 144편은 위의 그룹들 중에 마지막이나 거의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어, 제1-3권의 제왕시들이 전략적으로 배치된 것과 닮은꼴이다. 그리고 시편 72, 89편이 송영으로 종결하듯이, 110, 132, 144편도 곧 이어서 송영시들이 따라오고 있는 구조이다. 물론 규모면에서는 송영시의 분량이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제1-3권과 제4-5권의 편집상의 차이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up>31)</sup>

월슨의 연구는 시편의 전체에 대한 편집사적 연구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왕시에 대한 연구는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그런데 월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후대의 많은 학자들이 월슨이 제시한 시편의 전체의 편집 의도를 비판 없이 받아들여 주석들과 후속 논문들을 발간하게 되었다.<sup>32)</sup> 이런 대세의 영향을 반영한 김희석의 논문 “시 144편에 나타난 다윗 왕권과 그 신학적 함의”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세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는 월슨과 그의 후속 세대들이 시편 제4-5권에 나타난 제왕시의 전략적 배치를 간과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놓은 오도된 결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점이 아쉬운 점이다. 그는 논문의 목적을 밝히면서 월슨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두 학자인 호스펠트(Hossfeld)와 쟁어(Zenger)의 견해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들의 견해를 받아들여 시편 144편에 나타난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왕으로서의 인물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한 인간으로 묘사”한 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sup>33)</sup>

김희석이 자신의 논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편 18편에는 ‘이방인’이 다윗에게 복종한다는 내용이지만, 시편 144편은 이방인이 “다윗을 핍박하는 권세자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시편 144편에서 “우주적인 다윗 왕권의 통치가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는 곧 “다윗 왕권의 우주적 통치가 회복 될 것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34)</sup> 둘째, 시편 18편이 다윗 왕권의 “우주적인 통치를 강조”하고 있다면 시편 144편은 야훼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12-15절).<sup>35)</sup> 셋째, 시편 8편과 이를 인용하는 144편의 인간관에 대한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편 8편은 “인간에게 왕권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관점에서 해석하는 반면에 시편 144편은 “인간 존재의 허무함”을 다루고 있다고 본다. 김희석은 인간관에 대한 이러한 차이점을 “인간에 대한 왕권적 이미지를 기대하게 한 직후에 그 기대를 무너뜨림으로써

31)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필자의 논문을 참조하라. 김진규, *윗글*(2008), 144-145.

32) 월슨의 견해는 호스펠트, 쟁어, 메이스, 맥켄 등이 주석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F. L. Hossfeld and E. Zenger, *Die Psalmen I, Psalm 1-50* (Neue Echter Bibel 29; Würzburg: Echter Verlag, 1993); 호스펠트/쟁어, *윗글*(2011), 580-590; 메이스, *윗글*(1994); 맥켄, *윗글*(1996). 월슨이 이 분야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학자들도 다수가 그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이은애, “시 93-100편의 야훼-왕 찬양시의 구조와 역할,” *구약논단*, 제15권 3호 (2009), 67-86; 김희석, *윗글*, 76; 김성수, “문맥으로 시편 25-33편 읽기,” *구약논단*, 제19권 2호 (2013), 68-98. 김창대도 현재까지의 구성적 접근을 요약하면서 월슨의 견해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을 놓치고 있는 듯하다. 그는 월슨의 견해를 요약하면서 제4-5권에서 다윗 왕권이 무너진 후 야훼 왕권에 대한 신뢰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밀첼이나 필자가 주장하는 제4-5권에 나오는 다윗 왕권의 회복을 통해 이루어 질 종말론적 관점과는 거리가 먼 견해이다. 김창대, “주위 문맥에서 본 시 46편의 시온 신학,” *구약논단*, 제15권 2호 (2009), 63-82. 유윤중은 월슨의 견해의 약점을 보완한 밀첼의 견해를 소개하여 이 분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를 시도하였으나 월슨과 밀첼이 함께 놓치고 있는 시편 제4-5권에 나오는 제왕시들의 전략적 배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점이 아쉽다. 그리고 시편 연구에 있어서 구성적 접근에 대한 유윤중의 부정적 평가는 단편적인 평가라고 생각된다. 지금 SBL이나 ETS와 같은 국제학회에서 가장 빈번히 발표되는 논문들이 구성적 접근을 사용한 시편연구이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들이 권위 있는 주석서에 벌써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실정이다. 유윤중, *윗글*, 30-33, 42-44.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내외 시편연구사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김태경, “시편연구사: 1990년 이후 현재까지,” *구약논단*, 제20권 3호 (2014), 325-356.

33) 김희석, *윗글*, 76.

34) *윗글*, 79-80. 특히 김희석이 사용하는 ‘우주적(인)’이라는 말을 문자대로 받으면 이는 신약시대에 도래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권을 부정하는 심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35) *윗글*, 80.

인간의 연약함에 대하여 강조하려는 전환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시편 144편은 시편 8편에 나타나 있는 “다윗 왕권의 주제를 전환시켜 여호와 왕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36)</sup> 결국 시편 144편이 인간의 허무함을 강조한 것은 야훼 왕권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sup>37)</sup> 그리하여 김희석은 제5권의 다윗 시편(138-145편)은 다윗을 “스스로 다스리는 왕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본다.<sup>38)</sup> 김희석은 필자의 견해를 받아들여 시편 제4-5권에서 다윗 언약을 부정하지는 않고 다윗 언약이 야훼의 통치권 아래에 들어간 새롭게 발전한 다윗 언약의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sup>3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석은 “다윗이 더 이상 자신을 ‘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에 다윗 언약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sup>40)</sup>

김희석의 해석은 설득력 있게 보이지만 그의 근본적인 전제는 윌슨의 시편 전체에 대한 편집상의 의제를 그대로 반영한 접근이기 때문에 윌슨이 제4-5권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제왕시들의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한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김희석이 제시하고 있는 시편 144편에 나타난 다윗 언약에 대한 견해는 상당한 의문점들을 남긴다. 첫째, 시편 제4-5권이 편집될 당시에 다윗 언약은 과연 김희석이 제시하고

있듯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축소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가? 이런 주장은 본문 자체의 증거와도 맞지 않는다. 시편 144편이 제왕시로 분류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2절에 나오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라고 김태경은 밝힌다. 그는 이 표현에 근거하여 본 시의 기자가 “이스라엘의 왕이거나 왕에 버금가는 지도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한다.<sup>41)</sup> 지금까지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시편 144편을 제왕시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또한 뒷받침하고 있다.<sup>42)</sup>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동의적 대구법의 구조가 여기서 ‘이상적인 다윗’을 왕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הַנּוֹחַן תְּשׁוּעָה לַמְּלָכִים

(A)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

הַפּוֹצֵה אֶת־דָּוִד עֲבָדוֹ מִחֶרֶב רָעָה

(B)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시니이다. //

10절의 콜론 A와 B는 “왕들”과 “그의 종 다윗”이 동의적 대구를 이루고,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와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시니이다”가 동의적 대구를 이루는 구조이다. 쿠겔(J. Kugel)의 이론을 여기에 적용하면 A 콜론의 “왕들”을 구원하신다는 보편적인 진술을 B 콜론은 구체적인 인물인 “다윗”을 더욱 구원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강화와 강조의 의미가 부각된 형태이다.<sup>43)</sup> 그러므로 ‘종’ 다윗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는 다윗의 비천한 처지를 나타낸다는 호스펠트와 쟁어의 견해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sup>44)</sup> 10절의 동의적 대구법의 구조는 다윗을 ‘왕 중의

36) 윌슨, 81-84.

37) 필자의 의견에는 시편 144편에서 뿐만 아니라 시편 제4-5권 전체에서 인간의 허무함을 강조하는 주제가 자주 등장한다고 본다. 제4-5권의 편집 시기는 포로기나 포로후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하거나 포로생활 중에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인간관의 변화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참고, 시 89:47; 90:5-7, 9-10; 103:15; 94:11).

38) 김희석, 윌슨, 86.

39) 윌슨, 87; 김진규, 윌슨(2009). 김희석의 이 견해는 왕권에 대한 구약신학의 전반적인 가르침이지 굳이 시편 제4-5권만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본다. 제1-3권에도 이와 동일한 신학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예, 시 2편). 시편 전체의 왕권에 대한 신학은 야훼 왕권이 전제되지 않은 다윗 왕권은 존재하지 않는다(예, 시 2, 89, 110, 132편 등). 야훼 왕권에 대한 강조점은 제4-5권만의 강조점이 아니라 제1-3권의 강조점이기도하다. 김창대의 논문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김창대, 윌슨, 63-82.

40) 김희석, 윌슨, 87.

41) 김태경, 「시편 III」(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495.

42) 김정우도 “시편 144편의 일차적인 주인공은 다윗 왕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다”라고 주석하고 있다. 김정우, 「시편주석 III」(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10), 743.

43) James L. Kugel,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44) 호스펠트/쟁어, 윌슨(2011), 586-587.

왕'으로 강화하고 있는 구조이다. 또 포로기나 포로후기에 '이상화된 다윗'은 '중'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왕직을 수행하는 것을 선지서들은 증언하고 있다(겔 34:23-24; 37:24-25). '중'이라는 용어 때문에 더 큰 그룹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사우르(Saur)는 10절의 동의적 대구법에 기초해서 콜론 A의 "왕들"은 "역사적 왕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콜론 B의 "다윗"은 "이상적인 왕, 다윗"으로 해석하고 있다.<sup>45)</sup> 바이저도 시편 144편이 시편 18편의 자료를 왕이 없던 포로후기의 시대에 재사용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적 의미로 재해석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sup>46)</sup>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 왕이란 인물의 존재가 시편 144편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이상화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시편 제4-5권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시편 110편과 132편에 나타난 다윗 언약에 대한 관점이 김희석이 주장하는 대로 다윗 왕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제왕시에 대한 구성적 접근의 원칙은 전략적으로 배치된 제왕시를 서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근접 맥락의 시편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우선된다. 이는 제왕시들이 뭉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권이나 하위그룹의 처음이나 끝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편 144편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4-5권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시편 110편과 132편과 비교하여 다윗 언약이나 왕권이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보아야 한다. 시편 110편과 132편은 다윗 언약이나 왕권을 결코 축소시키지 않는다.<sup>47)</sup> 다윗 언약이 더욱 부각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김희석은 바로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시편 144편이 다윗 시편(138-145편) 그룹에 속해 있지만 장르상 이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나 왕권

45) 윗글(2011), 586쪽에서 재인용. 여기서 호스펠트와 쟁어가 10절의 대구법의 구조를 대조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관찰이라고 본다.  
 46) 바이저, 윗글, 824.  
 47)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은 참조하길 바란다. 김진규, 윗글(2003), 86-137.

에 대한 연구에는 시편 144편의 근접 맥락이 전략적으로 배치된 제왕시들(시 110, 132) 보다도 부차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 시편 144편이 편집될 당시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미 역사적인 다윗은 죽고 없다. 포로기 혹은 제2성전기의 다윗이란 이름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이 당시 '다윗'은 메시아의 타이틀로 자주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에스겔 37장 25절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는 말에 나오는 '다윗'은 과거의 역사적 다윗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타이틀로 사용된 것이다.<sup>48)</sup> 시편 144편 10절에 사용된 '그의 종 다윗'은 그 용도상 에스겔에 사용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참고, 렘 30:9; 겔 34:23-24).

김희석이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시편 144편의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과 야훼 왕권에 대한 강조점은 이와 유사한 종말론적인 텍스트인 스가랴 14장과 비교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스가랴 14장에서 이방인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1-15절), 이방인들은 예루살렘과 대항해 싸우는 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성읍을 함락시키고 가옥을 약탈하고 부녀에게 욕을 먹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는 적으로 묘사하고 있다(2절). 다윗의 존재는 보이지 않고 오직 야훼께서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야훼께서 나가셔서 이방나라들을 치시고(3절), 야훼의 '발'이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서시는 것(4절)으로 묘사되어 있다.<sup>49)</sup> 스가랴 14장

48) 테일러(J. B. Taylor)는 겔 34:23-24와 37:24-25에 사용된 '다윗'은 역사적 다윗이 아니라 "이상화된 다윗"이라고 해석하고 동사는 그를 초인적인 존재로 보는데 이유는 그가 "영원히 그들의 왕"(겔 37:25)이 되고, "영원한 언약"과 "영원히 이르게 함"(겔 37:26)과 그의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J. B. Taylor, *Ezekiel* (TOTC; Downers Grove: IVP, 1969), 222-223, 240-241.  
 49) 바커(K. L. Barker)는 스가랴 14장 3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지칭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는 스가랴 14장이 메시아의 재림과 관계된다고 본다. K. L. Barker, *Zechariah*, F. E. Gaebelin(ed.),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7; Grand Rapids: Zondervan, 1985), 690-692.

4절에 나오는 야훼의 발이 감람산에 서시는 모습이 시편 144편 기자가 시편 18편의 야훼 강림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증거가 됨을 두 본문의 내용상 유사성의 관점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다. 나아가 스가랴 14장 9절은 야훼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 주장함으로써 ‘야훼 왕’ 사상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시편 144편이 스가랴 14장을 모델로 삼았다면 다윗 왕권에 대한 약화처럼 보이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시편 144편에 나타난 다윗 언약과 왕권을 희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야훼의 왕권을 강조하는 것이 본 시편의 텍스트의 의미를 충실히 살리는 해석이 아니겠는가? 이제 시편 144편이 시편 18편을 인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스가랴 14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보자.

### 3. 시편 144편 내에서 시편 18편의 사용

시편 144편에서 시편 18편을 사용하는 방식은 “기계적인 차용이 아니라 자료를 재배치하고, 다시 만들고, 확장해서 왕의 감사에서 왕의 불평으로 관점을 바꾼다.”<sup>50)</sup> 놀라운 사실은 “왕의 감사”(시 18편)에서 “왕의 불평”(시 144편)으로의 전이이다. 이는 시편 전체적인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변이이다.<sup>51)</sup> 시편 기자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시편 144편을 재구성한 동기는 무엇일까?

시편 144편은 (시편 110편과 132편도 마찬가지로) 스가랴서와 상당한 평행을 이루고 있다.<sup>52)</sup> 시편 144편의 첫 번째 구절이 시편 18편

3[2]절과 35[34]절을 각색해서 사용하고 있다. 왜 시편 기자가 시편 18편 35[34]절에 나오는 전쟁 준비 영상을 이 시편의 첫 번째 구절에 배치하고 있을까? 이 구절은 시편 18편의 약 2/3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말이다.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3[2]절과 35[34]절을 재구성해서, 스가랴 14장의 초두에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으로 묘사된 종말론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시편 144편 1절을 만든 것 같다.<sup>53)</sup> 적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약탈한다. 심지어 또 다른 ‘포로됨’이 스가랴 14장 2절에 언급되어 있다. 다가오는 최후의 종말론적인 전쟁에 대비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4편을 지어서 최후의 전쟁을 위해 다윗을 강하게 하시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끌고 있다.

시편 144편 10절에 나오는 ‘다윗’은 포로후기에 왕이 없었다는 점에서 ‘종말론적인 다윗’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참고, 겔 34:23-24; 37:24-25).<sup>54)</sup> 이것이 시편 144편 1절에 야훼께서 “전쟁을 위해서[다

9-14장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주로 달렸다. 다음의 몇몇 학자들은 두 부분이 다른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본다. B. Stade, “Deuterozacharja. Eine kritische Studie,” ZAW 1 (1881), 1-96; B. Stade, “Deuterozacharja. Eine kritische Studie,” ZAW 2 (1882), 151-172, 275-309; F. C. Eiselen, *The Prophetic Books of the Old Testament* (N.Y.: Methodist Book Concern, 1923), 560; B. Otzen, *Studien über Deutero-Sacharja* (Copenhagen: Munksgaard, 1964), 212. 그러나 다음 학자들은 두 부분이 같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본다. E. B. Pusey, *The Minor Prophets: A Commentary, Explanatory and Practical* (N.Y.: Funk and Wagnells, 1885), 4-37; E. J. Young,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49), 273; P. Lamarche, *Zacharie i-xiv: Structure littéraire et messianisme* (Paris: Gabalda, 1961), 112-113; R. K.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With a Comprehensive Review of Old Testament Studies and a Special Supplement on the Apocrypha* (Grand Rapids: Eerdmans, 1969), 956; Baldwin, 윗글, 74-81; Y. T. Radday and D. Wickmann, “The Unity of Zechariah Examined in the Light of Statistical Linguistics,” ZAW 87 (1975), 30-55; R. Mason, “The Relation of Zech 9-14 to Proto-Zechariah,” ZAW 88 (1976), 227-238; B.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482-483. 필자는 두 부분의 주제의 단일성, 두 부분의 상호보완성, 스가랴와 시편 110편과 구조적 일치 등을 들어 동일 저자에 의한 기록이라고 박사학위논문에서 밝혔다(208-210). 이에 근거해서 스가랴서의 저작 시기를 주전 6세기 말기나 5세기 초기로 보았다(210-211). 스가랴서가 포로후기 직후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시편 144편의 저자는 스가랴 14장을 모델로 삼았을 시간적 여지가 충분히 있다.

53) 참고, Thomas E. McComiskey, *Zechariah*, Thomas E. McComiskey(ed.), (The Minor Prophets, vol. 3; Grand Rapids: Baker, 1998), 1227-1244.

54) 겔 34:23-24에 다윗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포로기에 메시아적인 의미로 이미 사용된 것을 의미한다. 테일러,

50) 알렌. 윗글, 289쪽에서 E. Baumann의 글을 재인용.

51) 베스트만은 “시편의 전반부는 주로 탄식시로 구성되어 있고, 후반부는 찬양시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다. C. Westermann,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trans. K. R. Crim, et al.), (Atlanta, Ga.: John Knox, 1981), 257.

52)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필자의 박사학위论문을 참조하길 바란다. 김진규, 윗글(2003), 121-137, 176-275. 스가랴서의 저작 시기에 대한 논의는 스가랴 1-8장과

윗의] 손을, 전쟁을 위해서 [다윗의] 손가락을 훈련하시는” 이유이다. 게다가 1-11절의 주도적인 전쟁의 영상은 스가랴 14장의 전쟁 영상과 매우 유사하다.<sup>55)</sup> 시편 144편 5절도 시편 18편 10[9]절을 재구성한 것이다. 비록 시편 144편 5절의 후반부가 원래의 자료와 다르지만, 시편 144편 5절과 시편 18편 10[9]절의 신현의 영상은 거의 동일하다. 특히 **נָסַח**(나가/접촉하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해 코멘트가 필요하다. 아모서 9장 5절과 시편 104편 32절에서처럼 이는 종말론적인 편집을 가리킨다.<sup>56)</sup> 시편 144편 5절에 **הַרְרִי**(하림/산들)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스가랴 14장 4절에 하늘로부터 야훼께서 내려오시는 것이 암시된 ‘산의 모티프’와 또한 평행을 이룬다. 신기하게도 스가랴 14장 5절도 시편 144편 5절에서처럼 똑같은 핵심 어휘소인 **הַרְרִי**과 **נָסַח**를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시편 144편 5절에 시편 18편 10[9]절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은 스가랴 14장 4-5절과 유사하다. 시편 144편 6절도 시편 18편 15[14]절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순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편 144편 6절에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편 기자가 종말론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것을 강하게 암시한다.<sup>57)</sup> 시편 18편 45-46[44-45]절에 사용된 **בְּנֵי-נֶכָר**(버네 네카르/이방인)와는 달리 시편 144편 7, 11절에 이를 “적들”과 동일시하는 것은 시편 144편의 기자가 스가랴 14장에서 ‘이방인들’을 적으로 간주하는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윗글(1969), 222-223, 240-241.

55) 주석가들은 시편 144편의 전쟁 영상을 주목하고 있다. 공켈(윗글, 605)은 이 시편의 1-11절의 배경을 군사 작전의 전조라고 여긴다. 알렌(윗글, 291)도 “이 시편의 주된 부분인 1-11절은 연합이 깨어지고 군사적인 공격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유대 왕이 원래 말한 것(7-8, 11절)”이라고 했다.

56) 쿡은 이를 “역사적 편집”이라고 여긴다. S. L. Cook, “Apocalypticism and the Psalte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4 (1992), 97. 호스펠트와 쟁어는 시편 104:32에 신현의 용어가 끼어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호스펠트/쟁어, 윗글(2011), 57. 허버드(D. A. Hubbard)는 아모서 9:5(“주 만군의 여호와께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에 신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D. A. Hubbard, *Joel & Amos* (TOTC; Downers Grove: IVP, 1989), 232. 니하우스(J. Niehaus)는 아모서 9:5에 사용된 용어가 최후의 심판 날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J. Niehaus, *Amos*, T. E. McComiskey (ed.), (The Minor Prophets, vol. 1; Grand Rapids: Baker, 1992), 483.

57) 쿡, 윗글, 97-98.

더구나 시편 144편 12-15절에 나오는 복의 메시지는 스가랴 14장 11, 16-19절에 묘사된 종말론적 복과 매우 유사하다. 스가랴 14장 1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안전은 시편 144편 14절에 나타나는 시편 기자의 거리의 안전을 위한 기도와 평행을 이룬다. 이방인들은 해마다 야훼를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스 14:16). 야훼를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나라들은 역병으로 징계를 받는다(스 14:17-19).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 144:15)라고 찬양한다.

시편 144편이 완전히 다른 장르를 결합시켜둔 것은 많은 양식비평가들을 혼란케 했다. 이들은 왜 시편 144편이 두 가지 다른 양식을 자연스럽게 결합시켜두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필자가 제안한 견해는 시편 144편의 혼합된 구성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복의 영상이 전쟁의 영상과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은 시편 144편의 저작을 위한 모델을 제공한 것처럼 보인다. 이 점은 시편 제5권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또 다른 제왕시들인 시편 110편과 132편이 스가랴와 상당한 일치를 보인다는 점을 보면 더욱 더 지지를 얻는다. 스가랴 14장 1-2절에 나타나는 예루살렘의 종말론적 고난은 비록 전쟁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승리를 거두지만(스 14:5), 이는 시편 144편 1-11절의 저작을 위한 주된 자극요인이 된 것 같다. 야훼께서 종말론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스 14:9), 종말론적인 평화와 복이 예루살렘 성에 임한다(스 14:11). 이 그림은 시편 144편 12-15절을 위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 4. 저작 배경의 이해를 위한 열쇠로서 시편 144편의 전략적 배치

전술한 것처럼 윌슨이 제1-3권에서 제왕시들이 전략적으로 배치된

것을 밝힌 것은 큰 기여였지만, 그가 제4-5권에 나타난 제왕시들의 전략적 배치를 파악하지 못한 점은 시편 전체의 편집 의도를 오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후대에 구성적 접근법을 따르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율손의 견해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시편 144편뿐만 아니라 제5권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제왕시들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도 상당한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제4-5권에 있는 제왕시들(시편 110, 132, 144편)의 전략적 배열을 이해하지 못하면 양식비평가들이 제공하고 있는 시편 144편의 해석을 넘어서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구성적 접근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인 메이스는 이의 전략적 배치를 파악하는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시편 144편은 공동체가 다윗으로서 기도하는 기도”라고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다.<sup>58)</sup> 그의 이해는 크라우스(H.-J. Kraus)나 알렌이 이의 배경으로 제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sup>59)</sup> 메이스는 이 시편의 종말론적 성격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앞에서 말한 대로 제5권에 나오는 세 개의 제왕시들(110, 132, 144편)은 스가라서와 상당한 유사점들을 보이고 있다.<sup>60)</sup> 시편 110편과 스가라서 사이에 많은 음소, 구절, 모티프, 주제, 이미지, 신학적인 유사성이 존재하고 있다.<sup>61)</sup> 사실상 왕권과 제사장직의 연합에 대한 신학은 오직 스가라 6장 13절과 시편 110편에만 나타나고 있다.

스가라 9장 9절에는 앞으로 오실 왕을 시편 110편 1-2절에서처럼 **מִיָּמִינִי וְיִשְׁמְרֵנִי**(짜디크 버노좌/의롭고 이긴)로 묘사되고 있다. 두 본문은 야

훼의 지도하에 피흘리는 종말론적 전쟁의 모티프를 포함하고 있다(스 9:14-16; 시 110:1-2, 5-6). 시편 110편 5-6절에 나라의 왕들이 야훼께 깃뻛힌 모습처럼 스가라 9장 10절에도 세계적인 통치권이 왕에게 주어진다. 전사(戰士)의 모티프와 함께 ‘시온’도 시편 110편 2절에서처럼 스가라 9장 13절에도 나타난다. 전쟁에서 야훼의 지도력이 시편 110편 1-2, 5-6절에서처럼 스가라 9장 14절에도 적들의 굴복의 이미지와 함께 언급된다. 시편 110편 7절에서처럼 스가라 9장 15절에도 마시는 이미지가 등장한다(마시는 대상은 다르지만). 양쪽 본문은 종말론적인 시간을 지칭하는 **מִיָּמִי**(버움/그날에)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스 9:16; 시 110:5). 시편 110편 3절에서처럼 스가라 9장 16절에도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시편 132편이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의 맥락에서 이는 “메시아의 약속과 여호와의 시온 중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 속에서 결실을 맺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sup>62)</sup> 한편 시편 89편은 메시아의 고난과 거절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시편 132편은 야훼께서 머무시는 곳(13-14절)인 시온에 메시아가 통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편 89편이 다윗 언약을 기름부음 받은 자의 거절에 대한 시인의 불평의 기초로 사용하고 있다면, 시편 132편은 다윗 언약을 포로후기에 다시 살아나는 메시아 소망의 토대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17절에 나오는 **צִמְצָמָה**(짜마/짜나다), **קֶרֶן**(케렌/뿔), **נֵר**(네르/등), **מְשִׁיחַ**(마쉬아흐/기름부음 받은 자)와 같은 말들은 야훼께서 메시아를 미래에 세우실 의향을 강하게 부각시킨다.<sup>63)</sup> 시편 132편의 메시아적 소망에 대한 메시지는 이 시편과 종말론적인 예언 특히 스가라서와의 유사성에 의해 더욱 확증된다.

58) 메이스, *윗글*, 435-437.

59) H.-J. Kraus, *Psalms 60-150: A Commentary* (trans. H. C. Oswald), (Minneapolis: Augsburg, 1989), 541-542; 알렌, *윗글*, 290.

60) 밀첼에 의하면 스가라 9-14장의 종말론적 이해가 시편을 편집하던 당시에는 만연했던 사상으로 보고 있다. 밀첼, *윗글*, 199-242.

61)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참조하라. 김진규, *윗글*(2003), 199-231. 참고, 밀첼, *윗글*, 264.

62) 알렌, *윗글*, 209.

63) 참고, 맥칸, *윗글*(1996), 1212. 마소라 사본 중에 **קֶרֶן**의 용도와 가장 가까운 것은 *겔* 29:21에 나온다.

시편 132편과 스가랴 1-8장 사이에는 주제, 모티프, 어휘소 등이 상당히 겹친다. 스가랴서가 성전이란 주제에 몰두하고 있듯이(참고, 스 4:9; 6:12-13), 시편 132편의 첫 열 구절도 야훼의 거처와 주로 관련되어 있다. 시편 132편 17절이 **קָדְשׁ**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듯이, 스가랴 1장 18절에도 **קָדְשׁ**이라는 모티프가 나타나고 있다.<sup>64)</sup> ‘시온’에 있는 야훼의 거처라는 주제가 시편 132편 13-14절과 스가랴 2장 10-12절과 8장 3절에도 나타나고 있다. 시편 132편 17절에 나오는 메시아적 용어인 **מָשִׁיחַ**도 스가랴 2장 8절과 6장 12절에도 발견된다. 스가랴 6장 12절에 사용된 **מָשִׁיחַ**(제마/씩 혹은 가지)는 분명히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sup>65)</sup> **גַּל** 모티프도 시편 132편 17절과 스가랴 4장 2절 양쪽에 모두 “기름부음 받은 자”와의 관계에서 표현된 말이다.<sup>66)</sup> ‘왕관’ 모티프도 시편 132편 18절과 스가랴 6장 14절에 모두 사용되었는데, 단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을 뿐이다.<sup>67)</sup> 무엇보다 핵심적인 메시아 어휘인 **מָשִׁיחַ**가 양쪽 텍스트에 모두 나타나고 있다(시 132:10, 17; 스 4:13). 만약 시편 132편을 포로후기에 저술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양쪽에 나타난 이 용어는 메시아(the Messiah)를 가리키는 용어임이 분명하다.<sup>68)</sup>

시편 132편도 시편 144편처럼 스가랴서를 모델로 저작되었을 수 있다고 본다(비록 시편 110, 132, 144편의 순서는 스가랴서의 순서와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아무튼 스가랴서에 제시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64) 시 132:17에 **קָדְשׁ**이란 말은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A. L. Perlman, “Horn,” *ISBE* 2:757.  
 65) 맥코미스키, *윌글*, 1077-1078, 1113-1114.  
 66) 하절은 “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삼하 7; 시 132:12) 다윗 왕가의 연속성(왕상 11:36; 15:4; 왕하 8:19; par. 대하 21:7; 참고, 시 132:17)을 위한 긍정적인 은유”라고 보았다. G. F. Hasel, “Lamp,” *ISBE* 3:68-69.  
 67) 시편 132편 18절에는 **קֶרֶן**(네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스가랴 6장 14절에는 **אֵתָרָא**(아타라)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두 용어 모두 “왕관”으로 보통 번역된다.  
 68) 어떤 학자들은 ‘메시아’를 단순히 ‘기름부음 받은 왕’을 지칭하는 용어로 간주하고 있지만 왕이 없었던 포로후기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메시아사상으로 발전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필자는 전자를 소문자 ‘messiah’라고 표기하고 후자를 대문자 ‘Messiah’라고 표기했다.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후자를 의미한다. 김진규, *윌글*(2003), 19-21.

강한 메시지가 시편 132편을 저작하고 배열한 모델일 개연성이 충분하다. 스가랴서 1-8장이 ‘씩’(**מָשִׁיחַ** 6:12)이라는 말로 상징된 메시아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듯이, 시편 132편도 시온성에서 메시아의 미래의 통치를 계시하고 있다.

시편의 맥락 속에서 시편 144편은 시편 110편 이후에 종말론적 전쟁이란 주제의 진전을 본다. 시편 110편은 야훼의 지도하에 메시아의 ‘초기의’ 종말론적 전쟁과 승리를 주로 다루고 있다. 시편 89편에서 메시아의 고난과 거절과 그리고 시편 110편에서 초기의 의기양양한 종말론적 전쟁과 승리 이후에 시편 132편은 메시아의 통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편 132편에서의 메시아의 통치 이후에 시편 144편 1-11절에 묘사하듯이 ‘최후의’ 종말론적 고난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야훼께서 하늘로부터 감람산 위에 강림(스 14:4; 참고, 시 144:5)하셔서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스 14:4, 9-19).<sup>69)</sup> 이 마지막 승리 이후에 풍부한 종말론적 복이 임할 것이다(시 144:12-15). 12-15절이 종말론적인 복을 묘사한다는 사실은 시편 72편 3, 6절에 유사한 개념을 사용한 점으로 더욱 확증된다. 후자에는 메시아 왕국의 복이 기록되어 있다.<sup>70)</sup> 예상대로 시편 145편은 제5권을 끝내는 송영시이다.<sup>71)</sup> 시편 146-150편은 시편 전체를 결론짓는 송영시들이다. 시편 145편 2-3절에 **לְהַלֵּל**(할랄/찬양하다)을 사용하고 있고 1, 2, 10, 21절에 야훼의 이름과 함께 **בָּרַךְ**(바라/송축하다)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점이 시편 145편의 송영시의 성격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이다. 제왕시인 시편 144편의 직

69) 바커는 스가랴 14장 6-8절에 나오는 우주적 표적을 포함한 대격변의 현상은 “야훼의 날의 종말론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다. 바커, *윌글*, 690-692. 시편 18편 10[9]절에 야훼 전사의 이미지로 원래 사용되었던 ‘야훼의 강림 이미지’는 시편 144:5-6에서 스가랴 14장의 관점에서 종말론적인 의미로 재사용된 것으로 필자는 본다. P. C. Craigie, *Psalms 1-50* (WBC 19; Waco, Texas: Word Books, 1983), 174.  
 70) 바이저, *윌글*, 823; J. H. Eaton, *Kingship and the Psalms* (SBT 32; London: SCM, 1976), 127; 크라우스, *윌글*, 541-544.  
 71) E. Zenger, “The Composition and Theology of the Fifth Book of Psalms, Psalms 107-145,”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80 (1998), 78.

후에 송영시인 145편을 배치된 것은 제왕시의 전략적 배열의 구조와 일치한다.

## 5. 나가는 말

요컨대 시편 제5권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제왕시들(110, 132, 144 편)은 스가라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스가라서가 시편의 마지막 권에 있는 제왕시들을 저작 그리고/혹은 배열한 배경으로 놓여있다고 필자는 보았다.<sup>72)</sup> 특히 제5권의 마지막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시편 144편은 스가라 14장에 예언된 종말론적인 최후의 전쟁의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메시아(the Messiah)를 위해 기도하도록 시편 18편의 상당한 분량을 재구성하고 재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시편 기자는 야훼께서 신현을 통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메시아께 승리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 특히 스가라 14장 4절에 나오는 신현의 이미지가 시편 기자로 하여금 그 이전에 쓰인 제왕시들 중에서 시편 18편(특히 10[9] 절)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12-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과 안녕은 스가라 14장 9-11, 16-21절에 나오는 복과 평안을 모델로 삼아 이 시편에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스가라서의 마지막 장인 14장은 말세에 다가오는 종말론적 전쟁과 복을 예언하고 있듯이, 시편 기자는 시편 144편에서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시편 18편을 재사용하여, 이를 전략적 위치에 배열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이를 묵상하고 종말론적인 야훼의 날(슥 14:1)을 염두에 두고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해가 포로기나 포로후기의 선지서에 나타나는 다윗 언약에 대한 종말론적 이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렘 23:5-6; 33:14-26; 쯔 34:23-24; 37:24-25; 단

72) 이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중요한 논지 중에 하나이다. 김진규, *윗글*(2003), 94-137, 176-275.

7:13-14).<sup>73)</sup>

## 6. 참고문헌

- 김성수, “문맥으로 시편 25-33편 읽기,” 『구약논단』 제19권 2호 (2013), 68-98.
- 김정우, 『시편주석 III』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10).
- 김진규,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편 89편: 다윗 언약은 실패한 언약인가?” 『구약논단』 제15권 2호 (2009), 83-110.
- 김창대, “주위 문맥에서 본 시 46편의 시온 신학,” 『구약논단』 제15권 2호 (2009), 63-82.
- 김태경, 『시편 III』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 \_\_\_\_\_, “시편연구사: 1990년 이후 현재까지,” 『구약논단』 제20권 3호 (2014), 325-356.

73) 해리슨(R. K. Harrison)에 의하면 렘 23:5에 사용된 “째마”는 “메시아 왕”을 지칭하는 용어이고 여기서 선지자는 야훼께서 다윗의 보좌를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다. R. K. Harrison, *Jeremiah & Lamentations* (TOTC; Downers Grove: IVP, 1973), 119-210. 쯔 34:23-24와 37:24-25에 사용된 ‘다윗’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테일러, 윌슨(1969), 222-223, 240-241. 단 7:13-14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야훼)께로 인도되어 영원한 권세와 나라가 그에게 주어진다. J. Goldingay, *Daniel* (WBC 30; Nashville: Thomas Nelson, 1989), 190-191. 사부린(Sabourin)에 따르면 구약성서에서 구름은 주로 “야훼의 임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에 단 7:13에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은 “신적인 속성”과 관계된다고 보았다. L. Sabourin, “The Biblical Cloud,” *Biblical Theology Bulletin* 4 (1974), 290-311. J. G. Baldwin, *Daniel* (TOTC; Downers Grove: IVP, 1978), 142-143쪽에서 재인용. 배경화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인자 같은 이”의 오심과 밀접히 연관된 사실을 밝히면서 단 7장이 전하는 메시지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함과 동시에 네 왕국이 지난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가르친다고 해석한다. 배경화, “연대기로 읽는 다니엘서의 종말론,” 『구약논단』 제19권 3호 (2013), 323-347. 구약의 메시아관은 다양한 각도로 계시되어 있는데, 다윗 언약을 통해 계시된 메시아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적인 존재로 주로 묘사되고 있으며(렘 23:5; 사 11:1-5; 시 110, 132, 144), 묵시문학에 계시된 메시아관은 신적인 존재로 묘사되어 있고(단 7:13-14; 슥 14:3-4), 이사야 53장에는 고난의 종으로 묘사되어 있고, 시편 110:4에는 제사장적인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구약의 메시아관을 서로 간에 완전히 분리된 실체로 보게 되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게 된다.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신적인 속성과 고난의 종으로서의 속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도된 메시아관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 김희석, “시 144편에 나타난 다윗 왕권과 그 신학적 함의,” 「구약논단」 16권 4호 (2010), 71-92.
- 배정훈, “연대기로 읽는 다니엘서의 종말론,” 「구약논단」 제19권 3호 (2013), 323-347.
- 유윤중,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제15권 2호 (2009), 30-62.
- 이은애, “시 93-100편의 야훼-왕 찬양시의 구조와 역할,” 「구약논단」 제15권 3호 (2009), 67-86.
- Allen, L. C., *Psalms 101-150* (WBC 21; Waco, Tex.: Word Books, 1983).
- Baldwin, J. G., *Daniel* (TOTC; Downers Grove: IVP, 1978).
- \_\_\_\_\_, *Haggai, Zechariah, Malachi: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OTC; Downers Grove: IVP, 1972).
- Barker, K. L., *Zechariah*, F. E. Gaebelin(ed.),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7; Grand Rapids: Zondervan, 1985).
- Childs, B. 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 Cook, S. L., “Apocalypticism and the Psalte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4 (1992), 82-99.
- Craigie, P. C., *Psalms 1-50* (WBC 19; Waco, Texas: Word Books, 1983).
- Dahood, Mitchell, S.J., *Psalms III: 101-150* (AB;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1970).
- Eaton, J. H., *Kingship and the Psalms* (SBT2 32; London: SCM, 1976).
- Eiselen, F. C., *The Prophetic Books of the Old Testament* (N.Y.: Methodist Book Concern, 1923).
- Goldingay, J., *Daniel* (WBC 30; Nashville: Thomas Nelson, 1989).
- Gunkel, H., *Die Psalmen* (5th e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 Harrison, R. K.,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With a Comprehensive Review of Old Testament Studies and a Special Supplement on the Apocrypha* (Grand Rapids: Eerdmans, 1969).
- \_\_\_\_\_, *Jeremiah & Lamentations* (TOTC; Downers Grove: IVP, 1973).
- Hasel, G. F., “Lamp,” *ISBE* 3:68-69.
- Hossfeld, F. L. and E. Zenger, *Die Psalmen I, Psalm 1-50* (Neue Echter Bibel 29; Würzburg: Echter Verlag, 1993).
- \_\_\_\_\_, *Psalms 3*, (trans. L. M. Malone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1).
- Hubbard, D. A., *Joel & Amos* (TOTC; Downers Grove: IVP, 1989).
- Kim, Jinkyu, “From a Royal Psalm to an Eschatological Psalm: The Changing Genre of Ps 110 in the Context of the Psalter,” *Korea Reformed Journal* 19 (2011), 9-43.
- \_\_\_\_\_, “Psalm 110 in its Literary and Generic Contexts: An Eschatological Interpretation” (Ph.D. dis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2003).
- \_\_\_\_\_, “The Strategic Arrangement of Royal Psalms in Books IV-V,”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70 (2008), 143-157.

- Koenen, K., *Jahwe wird kommen, zu herrschen über die Erde: Ps 90-110 als Komposition* (BBB 101; Weinheim: Beltz Athenäum Verlag, 1995).
- Kraus, H.-J., *Psalms 60-150: A Commentary* (trans. H. C. Oswald), (Minneapolis: Augsburg, 1989).
- Kugel, James L.,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 Lamarche, P., *Zacharie i-xiv: Structure littéraire et messianisme* (Paris: Gabalda, 1961).
- Mason, R., "The Relation of Zech 9-14 to Proto-Zechariah," *ZAW* 88 (1976), 227-238.
- Mays, James L., *Psalms* (IBC; Louisville: John Knox, 1994)
- \_\_\_\_\_, "The Question of Context in Psalm Interpretation," J. C. McCann, Jr.(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 McCann, J. C. Jr., *The Book of Psalms: Introduction, Commentary, and Reflections* (NIB 4; Nashville: Abingdon, 1996).
- \_\_\_\_\_, "Books I-III and the Editorial Purpose of the Hebrew Psalter," J. C. McCann, Jr.(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 McComiskey, Thomas E., *Zechariah*, Thomas E. McComiskey (ed.), (The Minor Prophets, vol. 3; Grand Rapids: Baker, 1998).
- Miller, P. D. Jr., "The Beginning of the Psalter," J. C. McCann, Jr.(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 Mitchell, D. C., *The Message of the Psalter: An Eschatological Programme in the Book of Psalms* (JSOTSup 25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 Niehaus, J., *Amos*, T. E. McComiskey(ed.), (The Minor Prophets, vol. 1; Grand Rapids: Baker, 1992).
- Otzen, B., *Studien über Deutero-Sacharja* (Copenhagen: Munksgaard, 1964).
- Perlman, A. L., "Horn," *ISBE* 2:757.
- Perowne, J. J. Stewart, *Commentary on the Psalms* (Grand Rapids: Kregel, 1989).
- Pusey, E. B., *The Minor Prophets: A Commentary, Explanatory and Practical* (N.Y.: Funk and Wagnells, 1885).
- Radday, Y. T. and D. Wickmann, "The Unity of Zechariah Examined in the Light of Statistical Linguistics," *ZAW* 87 (1975), 30-55.
- Sabourin, L., "The Biblical Cloud," *Biblical Theology Bulletin* 4 (1974), 290-311.
- Stade, B., "Deuterozacharja. Eine kritische Studie," *ZAW* 1 (1881), 1-96.
- \_\_\_\_\_, "Deuterozacharja. Eine kritische Studie," *ZAW* 2 (1882), 151-172, 275-309.
- Taylor, J. B., *Ezekiel* (TOTC; Downers Grove: IVP, 1969).
- Taylor, William R., *The Book of Psalms* (IB 4; Nashville: Abingdon, 1989).
- Weiser, Arthur, *The Psalms*. (trans. Herbert Hartwell), (OTL;

- Philadelphia: Westminster, 1962).
- Westermann, C.,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trans. K. R. Crim, et al.), (Atlanta, Ga.: John Knox, 1981).
- Wilson, G. H.,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SBLDS 76; Chico, Calif.: Scholars Press, 1985).
- \_\_\_\_\_, "The Use of Royal Psalms at the 'Seams' of the Hebrew Psalter," *JSOT* 35 (1986), 85-94.
- Young, E. J.,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49).
- Zenger, E., "The Composition and Theology of the Fifth Book of Psalms, Psalms 107-145,"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80 (1998), 77-102.
- \_\_\_\_\_, "Der Psalter als Wegweiser und Wegbegleiter: Ps 1-2 als Proömium des Psalmenbuchs," A. Angenendt and H. Vorgrimler (ed.), *Sie wandern von Kraft zu Kraft: Aufbrüche, Wege, Begegnungen—Festgabe für Bischof Reinhard Lettman* (Kevelaer: Butzon & Bercker, 1993).

## 검색어

시편 144편

시편 18편

제왕시

종말론

다윗언약

## Background of the Composition of Psalm 144 in Light of its Strategic Arrangement

Jinkyu Kim, Ph.D.

Professor, Dept. of Christian Studies

Baekseok University

Psalm 144 heavily relies on the earlier psalms, such as Psalms 8, 33, and especially 18. Because of its mixed form, Psalm 144 has puzzled many form-critical commentators. Form-critical approaches have failed to explain its compositional background. But recent development of the compositional approach to the Psalter sheds light on its compositional background, if one correctly understands the way Psalm 144 is using earlier psalms in its literary context. Up to the present time, however, the compositional approach to Books IV-V has predominantly relied on Wilson's view of the Davidic covenant and of the editorial agenda of the Psalter as trusting in Yahweh in Book IV. Because Wilson considers that the Davidic covenant has failed in Ps 89, he is not able to recognize the thematic development of the Davidic covenant and its eschatological implications in Books IV-V.

In my doctoral dissertation, I have challenged Wilson's negative evaluation of the Davidic covenant in Books IV-V, finding a strategic arrangement of the royal psalms (Pss 110, 132, and 144) in these books, by which I have opened the way to an eschat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royal psalms in Books IV-V.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literary similarities between Psalm 144 and Zechariah 14, which is one of the prime eschatological texts. In this paper I have demonstrated

that the eschatological idea of Zechariah 14 ha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present form of Psalm 144, in the way Psalm 144 reuses Psalm 18, Zechariah 14 contains the imageries of both warfare and eschatological blessings, which may have influenced the way Psalm 144 was composed. Psalm 144 is the last royal psalm in the Psalter and was strategically arranged in its present position (near the end of the subgroup of Psalms 135-145, followed by a doxology) in order to impart an eschatological message—the Messiah’s eschatological warfare, victory, and blessings under the leadership of Yahweh.

### Keywords

Psalm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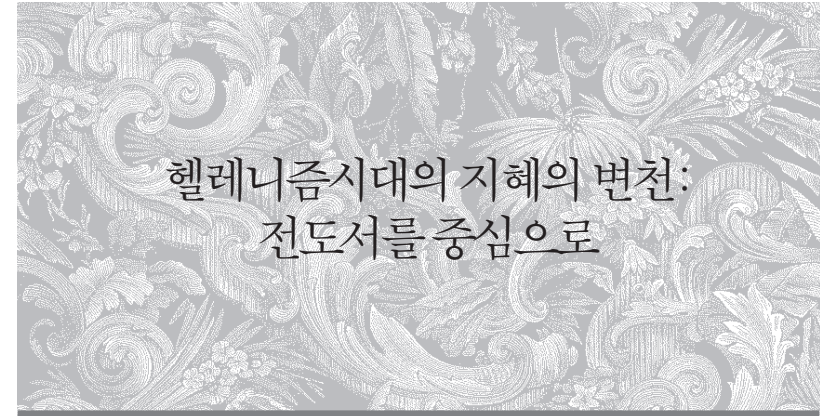
Psalm 18

royal psalms

eschatology

the Davidic covenant

- 투고일: 2015년 07월 01일
- 심사일: 2015년 07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08월 06일



안근조(호서대)

### 1. 들어가는 말

구약성서는 다양한 전승들의 산물이다. 전도서는 구약성서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문서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구속사적 신학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지혜전승 가운데 위치하면서도 동시에 그나마 잠언서와 같은 정통 지혜의 가르침에서도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도서의 반전통주의적 목소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전도서의 ‘다른 목소리’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는 여전히 유대주의 신앙의 경전으로 편입된 이유는 무엇인가? 반면에 전도서 이후에는 반전통주의적 지혜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시락서』(집회서)와 같은 정통주의 신앙으로 현자들의 목소리가 회귀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